

[中韩对照]

名著名篇阅读丛书

无情

무정

[韩] 李光洙 著
洪成一 杨磊 安太顺 编译

我可以同时爱着两个人吗？没有相互的理解
会有真正的爱情吗？

我的灵魂深处需要她吗？

她的灵魂深处需要我吗？

两个人在一起的时候是灵魂与灵魂碰撞，
心与心相连吗？

如果不是，我与她之间会有那种刀切不断，
烈火烧不尽的爱情吗？



无情
무정

© 洪成一 杨磊 安太顺 2007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无情: 朝汉对照/(韩)李光洙著; 洪成一, 杨磊, 安太顺编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7. 4

(中韩对照名著名篇阅读丛书)

ISBN 978-7-80722-386-3

I. 无… II. ①李… ②洪… ③杨… ④安… III. ①朝鲜语—汉语—对照读物②长篇小说—韩国—现代 IV. H559. 4: I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40308号

出版发行者: 辽宁民族出版社

(地址: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 110003)

印刷者: 沈阳航空发动机研究所印刷厂

幅面尺寸: 145mm×210mm

印 张: 9 $\frac{1}{2}$

字 数: 206千字

印 数: 1-3000

出版时间: 2007年4月第1版

印刷时间: 2007年4月第1次印刷

责任编辑: 张学林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卢 夏

定 价: 18.00元

联系电话: 024-23284348

邮购热线: 024-23284335

E-mail: lnmz@mail.lnpgc.com.cn

如有印装质量问题, 请与承印厂调换。



无情
무정

목 차 ◇



저자와 작품 소개	4
제1장 선형과의 초면	6
제2장 비참한 운명	28
제3장 희망의 파멸	72
제4장 바람처럼 사라진 여자	112
제5장 약혼	162
제6장 부활	188
제7장 우연한 만남	232
제8장 삼랑진의 수재	276
제9장 광명을 향하여	298



目 录 ◇



作者与作品简介	5
第一章 初会善馨	7
第二章 悲惨的命运	29
第三章 幻灭	73
第四章 失踪	113
第五章 订婚	163
第六章 复活	189
第七章 邂逅	233
第八章 三浪津水灾	277
第九章 奔向未来	299



저자와 작품 소개

저자 이광수(1892-1950)의 호는 춘원, 평북 정주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계몽주의·민족주의·인도주의의 작가로 평가된다. 그의 대표작 「무정」은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된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며 한국문학사에 신기원을 이룩한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다. 「무정」은 민족주의적 이상과 계몽주의적 정열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서 발표되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영어 교사 이형식은 미국 유학 준비 중인 신여성 선형을 사랑하게 된다. 그런데 형식의 정신적 숭배자인 은사의 딸 영채가 나타난다. 영채는 억울하게 투옥된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다가 배 학감(명식)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형식에게 유서를 남기고 평양으로 떠난다. 영채는 열차 안에서 신여성 병옥을 우연히 만나 그녀의 설득으로 병옥과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한편 형식은 영채를 찾으러 평양에 갔다가 끝내 찾지 못하고 결국 선형과 약혼하여 같이 미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네 사람은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기차는 삼랑진 수재 현장에 이르러 연착하게 되고, 수재민들의 참상을 목격한 네 젊은이는 수재민을 위해 자선 음악회 등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간의 개인적인 감정은 사라지고, 열띤 토론을 통해 교육에 의한 민족적 부흥에 대한 사명을 다짐한다.

본서는 원작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책의 장절과 제목은 선택한 내용에 따라 번역자가 단 것이다.

作者与作品简介

作者李光洙(1892-1950),号春园,出生于朝鲜平安北道定州。他在韩国近代文学史上被誉为启蒙主义、民族主义和人道主义作家。他的代表作《无情》于1917年1月1日至6月14日在《每日申报》上连载。这既是作者的第一部长篇小说,也是开创韩国文学史新纪元的韩国近代初期的一部长篇小说。《无情》以民族主义的理想和启蒙主义的热忱较为完美的结合,一经问世就获得了极高的人气。

英语教师李亨植爱上了准备去美国留学的新女性善馨。这时他的恩师之女、崇拜他的英采出现在他的面前。为了营救含冤入狱的父亲,英采沦为了艺妓,后被裴学监(明植)强奸。她给亨植留下一封遗书,登上了去平壤的火车。在列车上英采偶遇新女性秉旭,她在秉旭的劝说下决定同去日本留学。

为寻找英采,亨植去了平壤,但空手而归。于是他于善馨订婚后,踏上了赴美留学的旅途。但亨植、善馨、英采和秉旭等四人在火车上偶遇。火车到达三浪津时因水灾而延误。他们目睹了灾民的悲惨景况后,举行了慈善音乐会,募款帮助灾民。在此过程中,他们消除了个人恩怨,经过热烈讨论,他们立志肩负起以教育为本的民族复兴的使命。

本书篇幅只有原著的三分之一,本书的章节和题目是编者根据节选的内容而设的。

제1장 선형과의 초면

경 성학교 영어 교사 이형식은 오후 두 시 사년급 영어 시간을 마치고 내려쫓이는 유월 별에 땀을 흘리면서 안동 김 장로의 집으로 간다. 김 장로의 딸 선형(善馨)이가 명년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하여 영어를 준비할 차로 이형식을 매일 한 시간씩 가정 교사로 고빙¹하여 오늘 오후 세 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음이라.

이형식은 아직 독신이라, 남의 여자와 가까이 교제하여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순결한 청년이 흔히 그러한 모양으로 젊은 여자를 대하면 자연 수줍은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확확 달며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남자로 생겨나서 이리함이 못생겼다면 못생겼다고도 하려니와, 여자를 보면 아무러한 핑계를 얻어서라도 가까이 하려고, 말 한마디라도 하여 보려 하는 잘난 사람들보다는 나으리라.

형식은 여러가지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 만나서 어떻게 인사를 할까. 남자 남자간에 하는 모양으로, '처음 보입니다. 저는 이형식이올시다' 이렇게 할까. 그러나 잠시라도 나는 가르치는 자요, 저는 배우는 자라, 그러면 미상불² 무슨 차별이 있거나 아닐까. 저편에서 먼저 내게 인사를 하거든 그제야 나도 인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닐까. 그것은 그러려니와³ 교수하는 방법은 어떻게나 할는지. 어제 김 장로에게 그 청탁을 들은 뒤로 지금껏 생각하건마는 무슨 묘방이 아니 생긴다. 가운데 책상을 하나 놓고, 거

第一章 初会善馨

下午两点，京城学校的英语教师李亨植上完了四年级的英语课，便向安东金长老家走去。六月的骄阳晒得他汗流浹背，也无暇顾及。金长老的女儿善馨打算明年去美国留学，为补英语请李亨植做家庭教师，每天上一小时英语课，今天下午3点开课。

李亨植至今单身，从未同女性交往过，他和其他单纯的青年一样，一面对年轻女子就羞得满脸通红，不由得⁴低下头去。堂堂男子汉见到女人就手足无措，说起来固然可笑，不过，比起那些一见到女人就想找个借口套近乎⁵，自以为了不起⁶的男人强多了。

亨植假设了种种情况。首先，初次见面该怎么打招呼呢？不然就像男人和男人之间打招呼那样说：“初次见面，我叫李亨植。”但是，毕竟我是老师，她是学生，是否应该有所区别呢。是不是她先向我行礼后我再向她回礼呢？其次，课应该怎么上呢？昨天答应了金长老的请求之后一直想到现在，但还是没有想出什么好主意。要不中间放个桌子，面对面地教？这样的话很可能会感觉得到对方的气息。说不定她

- 1 고명: 以礼聘请学问高深或技术娴熟的人.
- 2 미상불: 果然, 确实.
- 3 러니와: 接续词缀, 前后两个事实之间有轻微的转折关系. 相当于汉语的“固然……但……”.
- 4 不由得: 저도 모르게. 저절로.
- 5 套近乎: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아는 체 하며 친한 체 하다.
- 6 了不起: 대단하다. 뛰어나다.

기 마주 앉아서 가르칠까. 그러면 입김과 입김이 서로 마주치겠다. 혹 저편 히사시가미¹가 내 이마에 스칠 때도 있으려다. 책상 아래에서 무릎과 무릎이 가만히 마주 닿기도 하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식은 붉어지며 혼자 빙긋 웃었다. 아니아니? 그러다가 만일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어찌게. 옳다! 될 수 있는 대로 책상에서 멀리 떠나 앉았다 만일 저편 무릎이 내게 닿거든 깜짝 놀라며 내 무릎을 치우리라. 그러나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면 여자에게 대하여 실례라. 점심 후에는 아직 담배는 아니 먹었건마는, 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입김을 후 내어 불어 본다. 그 입김이 손바닥에 반사되어 코로 들어가면 냄새의 유무를 시험할 수 있음이라.

형식은, 아뻘싸 내가 어찌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던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전신에 힘을 주어 이러한 약한 생각을 떼어 버리려 하나, 가슴속에는 이상하게 불길이 확확 일어난다. 이때에,

“미스터 리, 어디로 가는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쾌활하기로 동류간에 유명한 신우선(申友善)이가 대팻밥 모자를 짓혀 쓰고 활개를 치며 내려온다. 형식은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지나 아니할까 하여 두 뺨이 한번 더 후끈하는 것을 겨우 참고 지어서 쾌활하게 웃으면서,
“오래 막혔구려².”

하고 손을 잡아 흔들었다.

“오래 막혔구려는 무슨 막혔구려야. 일전에 허교³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형식은 얼마큼 마음에 수치한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리며,

“아직 그런 말에 익숙지를 못해서…….”

하고 말끝을 못 맺는다.

梳着两条小辮子的头发会擦过我的额头。或许放在桌子下面的膝盖也会无意中发生碰撞。想到这亨植不觉中脸红了起来，微微一笑。哎呀！不行不行！即使是在心里这样想也是犯罪啊！对！我要尽量坐得离桌子远一点儿，如果她的膝盖碰到我的膝盖的话，我该做吃惊状挪开我的膝盖。但是，假如我的嘴有什么异味儿的话对她就太失礼了。于是，尽管午饭后还没有抽烟，但他还是把手放在口前哈出了一口气。这口气通过手掌反射进入鼻孔里，就可以检验出嘴里有没有异味儿了。

哎呀！我怎么会想这些，难道我的意志力这么脆弱吗？他不由得攥紧了拳头，使出浑身的解数打消这个念头⁴，可是胸中却奇怪地燃起了熊熊烈火。正在这时，突然一个声音传了过来：

“李先生，你去哪儿？”

他被这个声音吓了一跳，猛地抬起了头。在同事间以开朗著称的申友善戴着一顶宽边卷檐帽大摇大摆⁵地向他走来。亨植担心申友善看穿自己的心思，故作镇静地挤出笑容，用力握住他的手说：

“久违，久违！”

“什么久违啊，不是说好朋友之间随便一些吗？”

亨植感觉有点不好意思，避开他的视线：

“我还不知道那种转文……”

他不知道该怎么说才好。

- 1 히사시가미(日语): 梳在两边的辮子.
- 2 막히다: 原意指被挡住, 被堵住等, 在这里指消息堵塞.
- 3 허교: ①互许交友. ②交往亲密, 可用对等阶语气说话.
- 4 打消念头: 어떠한 생각을 없애다.
- 5 大摇大摆: ①활개를 치다. ②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급지 않거든 점심이나 하세그려.”

“점심은 먹었는걸.”

“그러면 맥주나 한 잔 먹지.”

“내가 술을 먹는가.”

“그만두게. 사나이가 맥주 한 잔도 못 먹으면 어떡한단 말인가. 자 잠말 말고 가세.”

하고 손을 끌고 안동파출소 앞 청국 요릿집으로 들어간다.

“아닐세. 다른 날 같으면 사양도 아니 하겠네마는.”

하고 다른 날이란 말이 이상하게나 아니 들렸는가 하여 가슴이 뛰면서,

“오늘은 좀 일이 있어.”

“일? 무슨 일? 무슨 술 못 먹을 일이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러한 경우에 다만 ‘급히 좀 불일이 있어’ 하면 그만이려니와 워낙 정직하고 내약한 형식이라,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못하여 한참 주저주저하다가,

“세 시부터 개인 교수가 있어.”

“영어?”

“응.”

“어떤 사람인데 개인 교수를 받아?”

형식은 말이 막혔다. 우선은 남의 폐간을 꿰뚫어볼 듯한 두 눈으로 형식의 얼굴을 유심하게 들여다본다. 형식은 눈이 부신 듯이 고개를 숙인다.

“응, 어떤 사람인데 말을 못 하고 얼굴이 붉어지나, 응.”

형식은 민망하여 손으로 목을 쓸어 만지고 하염없이 웃으며,

“여자야.”

“요, 오메데토오¹(축하하네). 이이나즈케²(약혼한 사람)가 있나 보에그려. 음 나루호도³(그러려니). 그러구두 내게는 아무 말도

“你去哪儿？不急的话一起吃午饭吧。”

“已经吃过了。”

“那喝杯啤酒吧？”

“我什么时候喝过酒啊。”

“算了吧。男子汉大丈夫怎么能连杯啤酒都不能喝呢。少说没用的，走吧。”

申友善说完拉着亨植的手就要进位于安东派出所前的中国饭店。

“不了，如果是其他时候我也不客气。”他有点担心友善会不会对“其他时候”的说法起疑，便怦怦地心跳，“今天有点事。”

“有事，什么事？有什么事不能喝酒啊？”

如果换了其他人，这种情况下说一句“有点急事”就对付过去了，可是亨植本来就是老实巴交的人，一点都不会撒谎，犹豫了一会儿说：

“下午三点有家教。”

“英语？”

“对”

“是什么人啊？请家教上课？”

亨植一时哑口无言。友善用那似乎能够看透人心思的双眼注视着亨植的脸。亨植不好意思地低下了头。

“是什么人让你说不出话来还脸红，啊？”

亨植难为情地用手抚摸自己的脖子笑着说：

“是个女的。”

“噢，奥梅得涛(恭喜你)，看来你有订婚的女人啊。果不其然。怎么对我什么都没说过，

- 1 오메데토요: 日语, おめでとう(祝贺).
- 2 이이나스케: 日语, いいなづけ(①婚约 ②未婚妻, 未婚夫).
- 3 나루호도: 日语, なるほど(果然).

없단 말이야. 예, 여보게.”

하고 손으로 후려친다.

형식이 하도 심란하여 구두로 땅을 파면서,

“아니야, 저, 자네는 모르겠네. 김 장로라고 있느니……”

“웁지, 김 장로의 딸일세그려? 응. 저, 웁지, 작년이지. 정신여 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명년 미국 간다는 그 처녀로구먼. 베리 굿¹.”

“자네 어떻게 아는가?”

“그것 모르겠나. 이야시쿠모(적어도) 신문 기자가. 그런데 언제 앙게지먼트 (Engagement : 약속, 초빙) 하였는가.”

“아니오, 준비를 한다고 날더러 매일 한 시간씩 와 달라기에 오늘 처음 가는 길일세.”

“아따, 나를 속이면 어쩔 터인가.”

“엑.”

“히히, 그가 유명한 미인이라데. 자네 힘에 웬걸 되겠나마는 잘 알려보게. 그러면 또 보세.”

하고 대팻밥 병거지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며 교동 골목으로 내려간다. 형식은 이때껏 그의 너무 방탕함을 허물하더니 오늘은 도리어 그 파탈²하고 쾌활함이 부러운 듯하다.

미인이라는 말도 듣기 싫지는 아니하거니와 이이나즈케(약혼), 앙게지먼트라는 말이 이상하게 기쁘게 들린다. 그러나 ‘자네 힘에 웬걸 되겠는가’ 하였다. 과연 형식은 아무 힘도 없다. 황금 시대에 황금의 힘도 없고, 지식 시대에 남이 우러러볼 만한 지식의 힘도 없고, 예수 믿는 지는 오래나 워낙 교회에 뜻이 없으며 교회 내의 신용조차 그리 크지 못하다.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덕행도 없는 아이들이 목사나 장로의 집에 자주 다니며 알른알른하는 덕에 집사도 되고, 사찰도 되어 교회 내에서 쟁 채 하는 꼴을 볼

喂！”说着猛拍亨植。

亨植感觉心太乱，用皮鞋搓着地说，

“不是，你可能不知道。有个叫金长老的……”

“对啊，是金长老的女儿么？对了，是去年，以优异的成绩毕业于精新女子学校，明年要去美国留学的那个姑娘。Very good！”

“你怎么知道？”

“我怎么会不知道呢。至少我也是个报社记者啊。可是，你们是什么时候开始好上的。”

“不是，说是做准备，让我每天去一个小时，今天是第一次去。”

“哎，你瞒我可没什么好啊！”

“哎呀，哪有啊。”

“嘻嘻，听说她是出了名的美人儿，以你的实力行吗？不过，好好试试吧。那以后再见。”

他说完脱了宽边卷檐帽当扇子，一边扇一边向交洞胡同走去。亨植一直责怪友善过于放荡不羁，但今天反而羡慕起他的洒脱豪爽来。

听 he 说是美女，亨植并不反感，不仅如此，订婚、约会这样的词语，还令他莫名地兴奋起来。但是申友善又说，“以你的实力行吗？”。诚然，亨植没有什么能力。当今黄金时代，他却无金钱之力；当今知识时代，又无令人仰慕的知识积累。信教的时间倒是不短，但对教会实在提不起兴趣来，因为教会的信用也不大。当他看到既无知识又无德行的人经常出入于牧

1 베리굿: 英语, Very good (非常好).

2 꺾달: 从旧俗与礼节中摆脱出来.

때마다 형식은 구역이 나게¹ 생각하였다. 실로 형식에게는 시체² 하이칼라 처자의 애정을 끝 만한 아무 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형식은 자연스럽게 낙심스럽기도 하고, 비감스럽기도 하였다.

이럴 즈음에 김광현(金光鉉)이라 문패 붙은 집 대문에 다다랐다. 비록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예수의 사도연마는 그도 개명하면 땅도 사고, 은행 저금도 하고, 주권과 큰 집도 사고, 수십인 하인도 부리는 것이다. 김 장로는 서울 예수교회 중에도 양반이요, 재산가로 두셋째에 꼽히는 사람이라. 집도 꽤 크고 즐행랑³ 조차 십여 칸이 늘어 있다. 형식은 지위와 재산의 압박을 받는 듯한 일변 무섭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면서 소리를 가다듬어,

“이리 오너라.”

하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무리 하여도 딱 자리가 잡히지 못하고, 시골 사람이 처음 서울 와서 부르는 소리와 같이 어리고 떨리는 맛이 있다.

“안으로 들어오시랍니다.”

하는 어머님의 말을 따라 새삼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중문을 지나 안 대청⁴에 오르다.

전 같으면 외객이 중문 안을 들어설 리가 없건마는 그만하여도 옛날 습관을 많이 고친 것이다. 대청에는 반양식으로 유리문도 하여 달고 가운데는 무늬 있는 책상보 덮은 테이블과 네다섯 개 홍모전 교의가 있고, 북편 벽에 길이나 되는 책상에 친구 서적이 쌓였다.

김 장로가 웃으면서 뒷마루에 나와 형식이가 구두끈 끄르기를 기다려 손을 잡아 인도한다. 형식은 다시 온공하게 국궁례를 드린 후에 권하는 대로 교의에 앉았다. 김 장로는 이제 사십오륙 세 되는 깨끗한 중로라. 일찍 국장도 지내고 감사도 지낸 양반으로서 십여 년 전부터 예수교회에 들어가 작년에 장로가 되었다. 김 장